



# 모순을 보는 눈, 모순을 우는 눈

〈철학이란 무엇인가〉, 〈근대영문학사〉 강의 페어링

201521608 도초록, 영어영문학과  
이진희 교수님 지도

## Eyes And Tears

By Andrew Marvell

HOW wisely Nature did decree,  
With the same eyes to weep and see ;  
That, having viewed the object vain,  
They might be ready to complain!  
And, since the self-deluding sight  
In a false angle takes each height,  
These tears, which better measure all

## 목적

보는 눈과 우는 눈이 가진 차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철학과 문학의 중심점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는 눈을 가지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대한 대답을 내려보고자 한다.

## 서론

흔히 사람들은 눈의 기능을 보는 것에 한하여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본다는 것은 외부환경의 이미지를 단순히 ‘보는 것’ 이상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보는 눈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계산하는 등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게 처리한다. 즉 이는 진리를 추구하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인 Andrew Marvell이 자신의 시 *Eyes and Tears*에서 보여주듯이, 우리의 눈은 보기도하고 울기도 한다. 이러한 눈의 우는 기능은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도 볼 수 없었던 계산 불가능한 가치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사랑, 낭만, 아름다움, 예술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계산되기를 거부하는 것들의 세상이기도 하다. 계산 불가능한 것의 진정한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함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계산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것이 체념을 의미하는 양 이를 계산하려 하며, 계산이 되지 않으면 그 즉시 배제한다. 지금 우리 시대는 사유는, 그리고 나아가 인간은 보는 눈에 기초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우리 사회는 점점 우는 눈의 시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오류란 무엇인가

- ① 오류란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타당하지 않은 논증
- ② 참이 아닌 것을 참으로 이해하는 것
- ③ 모순을 허용하는 것(양립 불가능한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

## 문학이 오류를 다루는 태도

아름다움, 사랑, 계산 불가능의 시각으로서의 우는 눈의 구체적 예로는 예술 중에서도 문학을 이용하여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인 예로 작품 내에서 모순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We are seven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시의 화자는 한 어린 소녀에게 그녀의 형제가 몇 명인지를 물어본다. 소녀는 화자에게 자신의 형제는 7명이라고 대답하는데, 사실 그녀의 형제 중 2명은 죽어서 교회 무덤에 묻혀 있으므로 5명 뿐이다. 화자는 소녀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수정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해서 우리들은 7명이라고 답할 뿐이다.

논리적으로 이해한다면 소녀는 말을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7-2=5$  는 분명한 부정할 수 없는 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녀는  $7-2=5$  이면서 5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소녀는 왜  $7-2=7$  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들의 계산은 왜 다른 것일까. 이 시가 말하고 싶은 바는 소녀가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형제들은 분명 죽었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소녀에게 그들의 죽음은 그들이 더 이상 그녀의 형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이다.

이는 우리에게 익숙한 보는 눈으로 하는 계산하는 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랑에 바탕을 둔 소녀의 계산은 계산 불가능한 계산을 가능하게 한다. 작품 내에서 보는 눈으로 모순으로 인식된 것은 모순이라는 개념을 뛰어넘는다. 이 같은 경우 모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모순일 것이다. 즉 이는 진리(Truth)를 넘어서는, 진리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삶에는 더 의미 있고 가치를 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철학이 오류를 다루는 태도

이성, 판단, 계산의 시각으로서 보는 눈의 구체적 예를 들기 위하여 철학을 이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철학이란 그 분야의 폭이 넓고 모든 학문에 적용되는 특성이 있기에, 이를 한정하여 철학 중 논리적 분석과 정당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예로 모순을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짓말쟁이의 역설을 들 수 있다. 이 역설은 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인 모순율과 배중률에 반하는 모순적 상황을 보여준다. 수학에서 공리가 흔들리면 정리들이 흔들리듯, 진리(Truth)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는 오류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보이는 이 하나의 문장을 위해서 고전 논리학 체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논리 체계를 도입하는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다양한 논리학의 발전이 있었다. 이 사례는 철학은 모순적 상황을 피하고자 하며, 모순이 발생하면 이 모순은 허용되지 않으며 모순은 진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 We Are Seven

By William Wordsworth

“But they are dead; those two are dead!  
Their spirits are in heaven!”  
'Twas throwing words away; for still  
The little Maid would have her will,  
And said, “Nay, we are seven!”

## 거짓말쟁이의 역설

거짓말쟁이의 역설은 논리학의 근본원리인 모순율과 배중률이 참이라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했을 때 모순율에 배반되는 참이면서 거짓인 문장이 따르는 것이다.

(L) 이 문장은 거짓이다.

배중률을 만족하므로 이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다.

만약 (L)이 참이라고 가정한다면, (L)이 의미하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참이 되어 (L)은 거짓이 된다.  
그런데 (L)이 거짓이 된다면 (L)이 의미하는 ‘이 문장은 거짓이다.’가 거짓이 되어 (L)은 참이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참이면서 거짓인 문장, 거짓이면서 참인 문장이 된다.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이라는 것은 명백히 모순율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 문장은 모순이다.

## 결론

합리적, 이성적 사고는 엄격하게 제한적이며 문학적 예술적 사고,는 관대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문의 과제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철학은 세상을 설명하고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며 문학은 진리를 넘어서고자 한다. 어느 사고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우는 눈을 잃어가고 있는 사회에게 보는 눈을 통하여 세상을 계산하는 것만이 진리 발견의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오류(False)로 보이는 것을 오류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가치를 찾고 역동적인 힘을 발견하는 것, 관찰 가능한 세계의 너머를 들여다 보는 눈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진리에 도달할 가능성을 마주할 것이다.